

## 제 7 강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 - 이웃종교인과의 만남과 대화

## 6강 복습

- 종말론의 정의와 기능
- 성서적 종말론
- 죽음의 실존적 의미와 죽음을 기억하는 삶
- 죽음 너머에 대하여
- 지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극복으로의 부활
-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 희망의 영성

지난 주에는 종말론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죽음 뒤의 세계를 다루거나,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심을 미려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일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요.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통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고, 인간의 세계와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명하며,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의미와 목적 상실을 치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성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은 피안적이 아니라 오히려 차안적이며, 이 세상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고, 개인의 내면의 평안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구원을 강조하는 생명적이고 생태학적인 종말론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죽음 배제의 사회라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삶 가운데 있는 죽음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죽음과 고통에 대해 냉정하고 무감각하여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겸손한 인간이 되게 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죽음은 생물학적으로는 자연적인 결과이고 불가피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두렵고 혐오의 대상이 되지만 실존적으로 보면 죽음은 한 존재의 완성의 계기가 되고, 하느님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죽음 너머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삶이고, 그 삶이 진실하였다면 죽음 또한 그 삶 못지 않는 완성된 죽음이 될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란 순수하게 홀로 존재하려는 욕망 내지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

터 단절된 소외 상태를 가리키며, 천국과 영생이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손과 이웃에게 내 생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숨결이신 하느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불의”가 마지막 말일 수는 없다는 희망의 외침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정의가 넘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앞당겨 일어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에 따라 사는 것이 삶의 의미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은 현실을 초극하며, 하느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며 하느님의 약속을 오늘날 성취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문제도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묶여 살거나 또는 미래를 앞당겨 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 7강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그림출처, <http://twitaddons.com/forum/detail.php?id=18904>

오늘 주제는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부제는 “이웃종교인들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교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는 친구는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인과 대화를 나눠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시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혹시 이웃 종교의 의례를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시면 그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000 : 다른 종교에는 모두 “절”이라는 어떤 몸의 의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다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저기 이웃 종교를 찾아 배우다 보니, 절과 관련해서 배우게 됩

니다. 그런데 개신교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에요. 가톨릭만 해도 향을 피운다든지 종을 친다든지 다양한 공감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장치가 많은데 개신교 의례는 너무 머리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문덕 : “절” 이야기 하니까 수유리에 있는 화계사에서 했던 108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대학원 시절 화계사에 가서 어느 스님의 지도아래 108배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도 처음에 계속 절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머리는 온 세상 생명 앞에 조아리라고 있는 것이다.”였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요. 000 선생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행위는 겸손한 인간, 거룩한 것 앞에서 삼가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000 : 다른 종교인 친구들 많이 있는데, 만나서 종교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000 : 다른 종교인이라기 보다 제가 존경하던 그리스도교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 이야기 나누기



그림출처, <http://nuggetslifeslittlelessons.blogspot.kr/2014/04/your-heart-jesus-throne-room.html>

-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키프리우스(3세기주교)

-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 벌써 눈치를 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을 보시지요. 3세기의 주교 키프리우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에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종교인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나 가족 중에도 종교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우리가 이웃종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웃종교인들과 만남과 대화를 가져야 할까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 현실적 문제

- “종교들 사이의 평화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  
종교들 사이의 대화가 없이는 종교들 사이의 평화가 없다.  
서로들 사이의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종교들 사이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한스 쿡)



-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막스 뮐러)

한스 쿡이라는 가톨릭 신학자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종교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종교간 대화를 위해서 서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을 보면 이 학자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구촌이 하나로 가깝게 되는 이 시대에 정말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종교간 대화는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또 한편 막스 뮐러라는 사람은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종교간 대화가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도 요청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미처 모르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듯이 인간의 종교 또한 이웃종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학자가 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종교 다원적 상황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와 민족과 문화가 있듯이 종교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라난 나무이고 그 나무가 땅과 기후에 따라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종교들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기에 그 종교에 참여하는 종교인들의 만남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친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요.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종교의 만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각자 주장하기를 인류가 가야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모

범이 되는 각 종교가 서로 싸워서 인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모순되는 일이지요.

사실 종교 간 대화에 관심이 가장 많은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뿌리는 중동아시아지만, 서유럽 쪽에서 성장하면서 서유럽의 팽창과 더불어 인도나 동아시아, 남미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가운데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이라는 학문이나 비교종교학 등도 다 이런 역사와 연관되어 있지요. 지난 역사 속에서 종교 간의 대화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날 그 모습을 대체적으로 유형화하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종교간 대화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한인철 교수의 <종교다원주의의 유형>이라는 책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 종교간 대화

- 종교 전통 간의 대화 기준
  - 공통기반 : 무엇인가?, 공통적인가? 전제 or 결과?
  - 차이 : 질적 or 양적?, 질적 차이란?
  - 만남 : 개종 or 상호변혁, 개종이라면 개인 or 종교
- 종교 전통 사이의 대화의 종류
  - 배타주의
  - 포괄주의
  - 다원주의 : 공통 기반, 차이



그림출처, <http://boribab.tistory.com/4453>

한인철 교수는 유신론적 종교전통에서 주로 사용되던 “종교”라는 말 대신에 동양의 유불도와 같은 세계의 다양한 종교전통을 포함한 “종교전통”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종교전통들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통기반, 차이,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가 만남에 있어서 상호간에 공유되는 공통기반이 있는지, 발견된 공통기반이라는 것이 정말 공통적인지, 공통기반은 대화의 전제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등을 묻고, 서로 다른 두 종교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양적 차이인지, 질적 차이인지, 만약 질적인 차이라면, 그 질적인 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궁극적 실재라 불리는 것은 복합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하나인지 등을 물을 수 있고, 만남에 대하여는 만남의 목적이 개종인지 상호 변혁인지, 개종의 대상은 개인인지 종교전통 자체인지 등을 물음으로써 종교 간 대화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크게 배타주의와 포괄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로 나누게 됩니다. 다원주의는 조금 더 세분화 될 수 있는데 공통기반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와 차이를 중심으로



로 한 다원주의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 배타주의

공통기반	차이	만남
없음	질적 차이	개인의 개종

- 사도행전 4:12, 전통 가톨릭, 칼 바르트
- 유일한 하느님의 문제(마태 7:20)

그림출처,  
<http://kampfgeist.egloos.com/viewer/996685>



배타주의는 아까 보았던 키프리우스나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전통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자 칼 바르트<sup>1)</sup>에 의해 드러나는 형태로써 공통기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목적은 개인을 개종시키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종교와 질적 차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만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진리의 종교이고 타종교는 거짓이며, 어리석은 이방인이며 심지어 악마라는 흑백논리의 이원적 사유를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를 들고 불교의 스님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서슴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우 잘 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배타주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다른 종교들을 박해하고 몰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배타주의적 사고방식은 자신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자신이 옳다고 여길 때 자신이 정말 모르는 것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됩니다. 자신이 틀렸음에도 옳은 것으로 알고 행동하므로, 그 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데도 고집을 피우며 소통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 버리지요. 따라서 대화와 협의를 가장 필요한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교인 또는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7:20 이하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뜻을 실행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일삼는 일들이 진행되고, 유일신 하느님이 창조주시라면 모든 창조세계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부정

1) 사실 칼 바르트는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배타주의를 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우상 숭배적 요소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타주의는 일종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인간의 경험과 종교의 고백은 해석된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온 인류의 모든 경험을 포괄할 만한 진리가 될 수 없음에도, 현실 종교로서의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모든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없음으로 그 개인의 고백이나 종교의 교리가 결국은 인간의 경험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 특히 언어와 문화적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신과 헛갈려 그 경험을 신의 자리에 올려 놓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외쳤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또는 고집과 편견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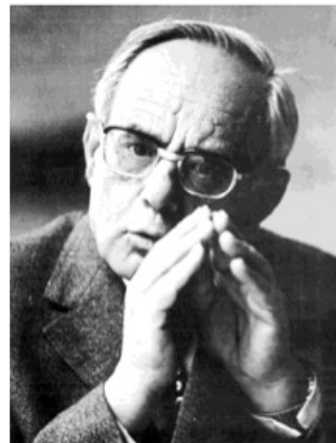
따라서 배타주의적 입장을 갖는 것은 현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득보다 실이 훨씬 많으며,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주의

공통기반	차이	만남
대화의 전제	양적 차이	종교전통의 개종

- 제 2 바티칸 공의회, 칼 라너  
“그리스도는 다 된 인간이고,  
사람들은 되어 가는 그리스도이다.”
- 기독교적 기준

그림출처, <http://www.pastoralcouncils.com/oldsite/Rahner100.htm>



다음은 제2바티칸 공의회 중심인물이었던 칼 라너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칼 라너는 “그리스도는 다 된 인간이고, 사람들은 되어 가는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들은 희미하게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괄주의는 대화의 전제로서 공통기반을 삼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이며, 따라서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교와 같은 충분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

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은총을 쏟아 부으시는데, 받는 사람의 각성의 정도에 따라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이 나눌 수 있다고 보고, 그리스도교가 가장 많이 받은 종교라고 보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비종교인들이 종교인이 될 때,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없을 순 없습니다. 사랑의 경험은 상대를 가장 높은 가치로 높이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종교인이 택하는 종교 간 대화의 가장 실제적인 방식은 아마 포괄주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주의는 배타주의의 흑백논리에서 떠나 다른 종교의 진리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지만, 여전히 그 기준을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웃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써서 모든 사람은 익명의 불교인, 익명의 유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만 한정하여 말한다면 그것 자체가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포괄주의는 다원주의 논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종교 다원주의

공통기반	차이	만남
어쩌면, 결과	종류별 질적 차이	상호 풍요, 성숙과 변혁

- 존 힉, 레이문도 파니카, 캔트웰 스미스, 린드백, 폴 니터, 존 캡 등
- 종교 상대주의의 위협(진리의 기준 없음)



그림출처, <http://oikoumene.tistory.com/45>

일단 종교 다원주의는 각각의 종교를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공통기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는 질적 차이이지만 그 질적 차이가 배타주의와 같이 다른 편을 배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적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함으로써 상호 성숙과 변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원주의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종교들이 보여주는 다원성의 현실을 가장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자신이 속한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속하지 않은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가장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서로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종교인이면 모두 이런 다원주의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여 비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상대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종교 저 종교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그게 그거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상대주의는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종교 다원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종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종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 조차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종교 다원주의가 하려는 것이 진리를 상대화하자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영원한 진리가 고정적으로 있다는 생각도 그리 옳은 것은 아니겠지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인식론의 강을 건너 해석학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가가도록 그저 노력할 뿐이지요.

다원주의는 다원주의답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다고 학자들의 이야기를 전부 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종교다원주의의 유형

- 공통기반을 중심으로
  - 신 중심적(존 힉) : 무지개, 등산, 등불
  - 신앙 중심적(캔트웰 스미스) : 신앙의 통일된 구조
  - 실재 중심적(레이문도 파니카) : 신-인-우주 관계
  - 구원 중심적(폴 니터) : 공통 목표
- 차이를 중심으로
  - 문화-언어적 접근(린드백)
  - 과정-관계적 접근(존 캡)



그림출처, <http://www.biblepower.co.kr/board.php?cateid=16&articleid=1383609352>

종교 다원주의는 크게 공통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와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는 각 종교들 사이에 뭔가 공통적으로 같은 기반이 있을 것이라 보고 대화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산을 올라가다 보면 서로 길은 달라도 같은 정상에서 만난다든지, 또는 무지개가 여러 색깔이지만 원래 한 빛에서 나왔다는지 하는 비유가 그렇지요. 존 힉이라는 학자가 대표자인데, 그는 궁극적 실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서로 만나 이야기 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유신론적 종교의 방법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캔트웰 스미스는 종교 제도나 전통보다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집중하여 그 신앙의 통일된 구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해 보자고 제안했으며, 레이문도 파니카라는 분은 실재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신-인-우주의 삼원 관계속에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요. 동양의 천-지-인과 같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겠지요. 파니카 같은 분과 같은 생각을 하면 하느님 얘기를 해도 우주와 인간을 함께 고민하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서양의 형이상학적 신과는 많이 다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의 사람들이 모두 공통기반을 전제로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고 했다면 폴 니터는 공통기반이 대화의 목적이 됩니다. 즉 세상의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각 종교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해탈과 같은 종교적 용어는 세상의 언어로 해방이나 자유, 사랑과 평등으로 재표현될 수 있을 텐데, 종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애쓰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만 들어보아도 다원주의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타주의가 가지는 부정적 요소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배타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다원주의를 말하면 마치 악마나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보면 한국교회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엄마가 제일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최고이지요. 우리 엄마가 최고인 사람이 꼭 이웃집 아줌마를 욕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 엄마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부족해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최고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으로 성장했다면 나이들어서는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도리이기도 하고요.

공통기반을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는 아무래도 공통적인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 각 종교의 독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대화의 재미와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란 새로운 사람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는 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중심으로 한 다원주의가 등장하지요. 린드백이라는 학자는 결국 종교의 다양성도 언어-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인간의 언어에 주목하여 각자의 차이를 주의깊게 살필 것을 조언합니다. 존 캡은 린드백이 말한 언어의 차이가 곧 바로 종교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같은 언어 공동체도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원주의에서 공통기반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적 흐름이 될 수 있고, 또 각 종교가 실제로 공통적이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종교다원주의는 차이에 주목하여 실존적으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서로 배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자기 변혁을 이루고 그 상호 영향 속에 타자가 스스로 자기를 변혁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존 캡은 보고 있습니다.

부단히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서로 성숙하며 이 세계를 위한 좋은 종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희망하는 것이지요. 설명을 들으면 배타주의보다는 포괄주의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하려면 종교 다원주의의 태도와 방식이 옳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을 가로지르는 예수 체험은 유일한 경험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그런 체험에서 오는 선교의 열정 또한 종교 다원주의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라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냐고 물어 옵니다. 따라서 선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고백도 종교 다원적 상황에서 재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교의 문제

- 종교 다원적 상황
- 예수의 유일성 다시 고백하기



그림출처, <http://vimeo.com/80492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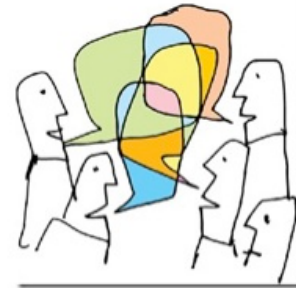
선교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세계는 종교 다원적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선교가 제국주의의 첨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선교는 피선교지의 상황과 필요에 대해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교가 진정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도 종교 다원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적 상황은 가치 다원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진리의 독점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독점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종교는 외적인 권위(돈, 권력 기타 등등)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서 각 종교가 지니고 있는 순수한 독특성을 가지고 세계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각 종교의 독특한 메시지 자체와 각 종교의 영성을 통하여 세상을 설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다원적 상황이 각 종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 발생의 원동력이었던 순수 가르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 변형 되어 왔습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인 변화였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종교 다원적 상황은 이런 지점에서 오히려 종교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당-지옥들에서는 예수가 수단으로 되지만 예수 따르미를 작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당시 사회의 변혁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기보다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병폐를 고치려고 애썼던 인간이지요. 그의 삶이 너무나 강렬한 빛을 세상에 주었기에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되지만 구체적 사랑의 실현과 지배를 혐오하는 철저한 평등주의는 오늘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불평등과 미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누구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선교는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적인 고향인 지구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회심으로부터 가정에서, 동네에서, 지역단위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삶을 잘 누리도록 하는 일에 협동하는 것이 선교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재밋고 유익한 영화를 보면 친구나 아는 이들에게 열심히 홍보하듯이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의미와 재미와 삶의 희망과 기쁨을 준다면 그런 지점을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배타적일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오늘날 선교는 우리들이 내세운 제목처럼 친구 사귀기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다보면 영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나름이지요. 그렇다고 친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른 지점을 존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종교인들이 나누는 삶의 대화

- 종교간 대화의 허구성
- 종교적 인간과 개인의 구체적 삶



- 종교인들끼리 만나는 문제

그림출처, <http://www.thinkvirus.net/7>

“예수를 따르는 이(그리스도인), 부처의 마음을 가진 이(불자), 인격의 완성을 위하여 애쓰는 이(군자)의 만남”

제가 오늘 강의의 부제를 “이웃종교인과의 만남과 대화”라고 했는데,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온 것을 새롭게 살피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 또는 “유교와 불교의 대화” 이런 말들을 잘 쓰지만 사실 종교끼리는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제도나 전통 안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즉 대화의 주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한 종교인 안에는 다양한 종교 전통과 사유가 들어 있고, 종교간 경계가 모호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봅시다. 한국에는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유교, 불교, 도교, 그 이전부터는 샤머니즘적 무교 등 여러 종교가 이미 있었고, 종교와 짝을 이루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전의 종교의 모습들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의 모임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성과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나이 든 남성으로 주로 구성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아마도 유교적이겠지요. 이렇듯 그동안 우리가 얘기한 종교간 대화는 현실에 맞지 않는 약간은 비현실적인 허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종교간 대화를 얘기하기 전에 각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에 속한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불교인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을 지닌 불자가 되면 종교간 다툼은 오히려 줄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자가 만나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보다 보면 오히려 불자와의 대화가 같은 그리스도교인과의 대화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 이웃종교로부터 배운 것

### • 불교의 연기론



그림출처, <http://quickstudy.tistory.com/category/철학퀴즈터디?page=3>

### • 유교의 자기 수양

其次致曲。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能化。(중용 23장)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웃 종교로부터 배운 것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불교의 연기론입니다. 연기는 정말 간단한 것인데, 모든 것은 관련지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실체로 상정한 오랜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주체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지만, 개인적 주체가 실체인 하느님께 자기의 욕망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유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발생하는 모든 것이 관계로부터 가능하다면 굳이 내 것이랄 것도 없고, 그렇게 집착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참 자유를 맛보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연기(緣起)의 이론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뭔가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유교의 자기 수양입니다. 제가 최근에 역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현



빈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주인공은 정조 임금으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왕위에 오른 지 1년 동안 사도세자를 죽인 무리들이 정조조차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맞서 싸우는 내용이 아주 긴장감 있게 표현됩니다. 그 영화에서 정조가 중용 23장을 계속 되내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중용 23장이 아주 멋드러진 번역으로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其次致曲. 曲能有誠, 誠則形, 形則著, 著則明, 明則動, 動則變, 變則化. 唯天下至誠爲能化.)

또 중용 20장에 보면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긴 설명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천재 같은 사람이 있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아주 어렵게 고생고생해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것이며, 남들이 1번 해서 가능하다면 너는 100번을 하고, 남들이 10번해서 가능하다면 너는 1000번을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노력한다면 비록 약해도 강해지며, 무식하다하더라도 곧 총명해 질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듯 유교는 끊임없는 자기 수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거룩한 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유교에서 배워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은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이제는 남을 수용하여 자신의 품을 더욱 넓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지요^^.

## 참고문헌

- 한인철, <종교다원주의의 유형>,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마저리 수하키, <신성과 다양성>, 한들출판사, 2012.  
 존 캡, <대화를 넘어서>, 이문출판사, 2010.  
 요셉 라칭거, <신앙, 진리, 관용>,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김승철,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II>, 도서출판 나단, 1993.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분도출판사, 1999.  
 길희성,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휴, 2013.  
 길희성, <보살예수>, 현암사, 2004.  
 폴 니터,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클리어마인드, 2011.  
 김경재, <해석학과 종교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4.